

漢醫學上으로본 茶山醫學의 特色(上)

趙憲泳

丁 茶山先生이 經世家로서 學者로서 卓越한 頭腦를 가지고 그 知識이 博洽함이 政治, 經濟, 法律, 天文, 地理, 文學, 宗教, 農學, 博物學 等に 通達하였스며 醫術도 相當하였다는 것쯤은 大概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茶山先生이 漢醫學者로서 얼마만한 力量을 가졌스며 어떠한 地位를 占하고 있는가 하는대 對해서는 仔細히 알지 못하는 이가 만흐리라고 생각한다.

朝鮮의 漢醫學者를 찾는다면 筆者는 第一 먼저 茶山先生을 말하겠다. 이것은 결코 茶山先生이 장하다고 모다들 말하니까 덤허노코 醫學에도 茶山先生이 第一이라고 風聲鶴唳로 떠드는 것이 아니오, 筆者의 見聞이 좁은 탓인지는 모르나 事實에 잇서서 茶山만큼 한 漢醫學者가 업섯다.

許浚의 『東醫寶鑑』이 잇고 康命吉의 『濟衆新編』이 잇고 李景華의 『廣濟秘笈』이 잇고 그 외에 『醫方活套』니 무슨 經驗方이니 무슨 治驗錄이니 무슨 方이니 하는 것이 만히 잇스나 거기에 한 가지도 學術적으로 새로운 學說과 색다른 意見을 發見할 수 업스며 그때그때에 神醫라고 떠들던 有名한 臨床醫家は 얼마던지 잇지마는 理論으로 前人の 說을 더 發展시킨 이는 別로 업스니 自己獨特한 學者的 立場을 가진 漢方醫家로는 丁 茶山先生(批判論, 實際論)과 李東武(四象論), 李右谷(扶陽論)들을 먼저 말할 수 박게 업다,

茶山先生이 著述한 醫書에 『麻科會通』이 有名하고 훌륭하나 그것을 論하는 것은 專門的이 되고 또 너무 길겟스므로 여기서는 다만 그 學者的 特色을 몇가지 紹介하겠다.

一, 茶山先生의 批判的 態度

茶山이 先哲의 學說에 對하여 批判的 態度를 取했다는 것은 우리가 김히 敬意를 表하지 안할 수 업다.